



〈파파야〉 〈구아바〉 〈망고〉 〈악스애플〉

전남산 열대과일 뜬다

파파야·망고 등 소비자 웰빙식품 선호

농가 재배면적 늘리고 신품종 도입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해 전남지역 일부 지역에서 파 파야(papaya)·구아바(guava) 등 이색적인 열대과일의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도시 소비자들이 웰빙상품으로 이들 열대과일을 선호하면서 재배면적이 급증할 추세다. 곡성군 입면 송전리 정재준(44)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천300㎡(1천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파파야를 생산하고 있다. 정씨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폐열(廢熱)을 활용해 파파야 재배에 적합한 25~30℃의 온도를 유지, 시설재배의 가장 큰 고민인 난방문제를 해결했다. 필리핀 등 수입산 파파야는 검역과정에서 60℃로 훈증 소독하고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15일이나 걸려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반해, 정씨의 상품은 생산과 동시에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신선도와 품질에서 월등하게 앞선다. 해남군에서도 올해부터 2농가 0.2ha(600평)에서 파파야 실증 재배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5일 씨를 심어 현재 40~50cm크기로 자라 오는 9월에 수확할 예정이다. 구아바 역시 해남군 1농가가 0.1ha(300평) 규모에서 500여 그루를 심어 우선은 열매보다 관엽류 상품으로 개발중이다. 영암군은 올해 6농가에 6천만원의 지원해 내대산 과수원 블루베리 와 석류·한라봉 재배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망고·아페모야·파파야 등 새로운 열대과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송기홍기자 song@

이와 관련,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역시 지난해 파파야·망고·구아바·아페모야·악스애플 등 6종의 열대과수 목종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11종을 보태 전남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와 재배기술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파파야는 비타민 K·E가 풍부하고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구아바는 비타민C 함량이 유아보다 40배 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병준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며 열대과일을 맛볼 기회가 늘었다”며 “열대과일의 국내 수요가 늘어 우선은 열매보다 관엽류로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지난 96년(1912~2008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7℃가 상승했다. /송기홍기자 song@

완도 수산물 살려주세요

불황·소비감소 어려움... 군수·어민대표, 정부 대책 호소

“지역경기 침체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죽을 맛입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19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완도군 회의실에 김광복(민주당) 국회의원,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 관련 단체 기관장과 어민대표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하나같이

이 지역경기 침체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낚은 시설과 장비 구입 지원, 어장 재배치, 해조류 재활용 등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관어 등 어류 양식 어민들은 “금융권이 어류 양식어가를 외면해 어려움이 많다”며 계통 출하자금 지원, 완산

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최근 완도군수협이 완도 금일수협으로 계약이전 됨에 따라 신규 조합원 가입의 어려움과 어촌계 소멸에 따른 어업권 문제, 신용회복·과산신청에 따른 부실 경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국회의원과 김종식 완도군수 등은 “어려운 수산업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완도군과 협조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정은기자 jejung@



제주농협 전남쌀 구입 결의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점장 17명이 20일 해남 육천농협 OK라 이스터너를 둘러보고 전남쌀 구입을 결의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21일까지 이들과 함께 나주연합사업단, 해남 회원농협 등지에서 ‘전남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남철원본부 제공>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점장 17명이 20일 해남 육천농협 OK라 이스터너를 둘러보고 전남쌀 구입을 결의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21일까지 이들과 함께 나주연합사업단, 해남 회원농협 등지에서 ‘전남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남철원본부 제공>

강진군 행정 동우회 귀농자 정착 돕는다

강진군 행정동우회가 전국 최초로 귀농자 조기정착을 위한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행정동우회(회장 나종식)들과 타지역에서 강진으로 이주해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연구회(회장 신현우)원간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밝혔다.

이날 결연식에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행정동우회원 46명, 귀농연구회원 등 61명, 담양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했다. 행정동우회는 앞으로 귀농연구회원 1~3명씩을 대상으로 멘토역할을 수행,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에 따른 행정적 도움을 주게 된다. 나종식 강진행정동우회 회장은 “낯설고 물 설은 강진에서 귀농자들이 생활터전과 보금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과 예로사항을 적극 나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귀농자에 대한 정착금으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현장체험 교육비로 240만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강진=남철원기자 chou@

들노래 들으며 전통 모내기 체험

오늘 전남 농업박물관



사진은 지난해 5월 열린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 모습.

‘남도 들노래 들으며 전통 옛 방식대로 모내기 체험 즐기세요.’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21일 오전 박물관 야외자연학습장 내 330㎡ 규모의 논에서 ‘모찌기’와 ‘모내기’ 시연 체험행사를 갖는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진도 남도들노래 보존회원들과 영암 대불초교, 삼호 중앙초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전통 모내기를 체험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농업박물관이 벼농사 의 과정을 전통 농가유행에 맞춰 오는 9월 말까지 추진하게 될 ‘벼 한 살이 체험행사’ 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주요 행사

로는 박물관이 지난달 9일 파종해 놓은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직접 옛 방식대로 손으로 찌내어(모찌기) 못줄을 띄워 모를 심어보는 모심기 체험 등이다. 강석호 농업박물관장은 “옛 농경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일반인들은 옛 추억을 다시금 회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통 농경문화의 전승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kki@

농가부채 줄이고 일손부족 해소

농기계은행 사업 ‘일석이조’

농협전남본부 7개월만에 성과

농가부채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의 농기계은행 사업이 7개월여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전남본부에서 농가로부터 매입한 중고 농기계는 350여대에 달해 이자포함 371억원의 농가부채 절감효과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남본부의 목표액은 3천300대·560억원에 이른다. 15일까지의 실적은 트랙터 1천177대·234억원, 승용 이앙기 275대·29억원, 콤바인 353대·87억원 등으로

목표액의 62.5%를 달성했다.

농기계은행 사업은 농가 중고 농기계를 매각 후 재임대해 농사를 지을 경우 중고 농기계 매각금액의 80%를 내용연수로 나눠 임대료로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잔존가액의 10%로 인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각금액의 10%와 매각시 잔존 용자 금 이자 해당액만큼 특이 되므로, 농기계 관리만 잘하면 잔존가치가 높아져 농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3천128억원의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4월중 2천628억원을 앞당겨 지원했고, 500억원이 6월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재기자 jitee@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하세요”

나주시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

나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민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적극 지원한다.

나주시 자치행정과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희망하는 직원들과 지역 유관기관을 연계한 팀을 꾸려 안전용품과 출근복을 지원키로 하고 매주 두차례에 걸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산뿐만 아니라의 5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전거 경기나 묘기 시연을 통해 관심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나주=정철원기자 jung@

또 가정에서 학교까지 자전거 통학이 용이하거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시범으로 지정해 보관대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자전거 전용모퉁이를 가입시켜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자전거 이용환관 광산품 개발 ▲자전거 관련산업 유치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구축 ▲공공 자전거 시스템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할 계획이다.

신정호 나주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맞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jung@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National Law and Economics) featuring legal services, real estate, and auction information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Jeonbuk, and Jeju.

경제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